

게루마 마을

게루마 마을: 게라마식 슬로우 라이프

게라마에 있는 마을은 과거 70 년 동안 크게 변화했습니다. 원래의 많은 목조 주택이 1945 년 3 월 미군의 포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옴과 더불어 단층집 목조 건물은 더 큰 콘크리트 건축물로 바뀌고, 집을 둘러싸는 산울타리나 산호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담은 콘크리트 블록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담이나 바람막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루마는 원래 오키나와의 특징이 질게 남아 있습니다.

‘게라마 그린’을 체험

게루마지마 섬에 있는 아담한 게루마 마을(인구 60 명)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 게라마 제도의 마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형형색색의 새, 나비, 야생화와의 만남을 즐기면서 산호 덩어리로 이루어진 담이나 후부키 가로수(자연 방풍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의, 비포장 모래 골목길이나 푸르른 풀밭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게라마 블루가 아닌, 게라마 그린의 세계입니다!

게루마에서 꼭 가봐야 하는 장소

·전통적인 뱃사람의 가옥

해상 운송으로 재산을 축적한 게라마 선주민들의 집은 ‘신도슈야’(선장의 집)라고 불렸습니다. 보존상태가 매우 좋은 신도슈야의 예인 다카라가 주택은 게루마에서 가장 훌륭한 산호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카라가 주택에서는 게루마의 유복한 가정이 20 세기 후반까지 어떤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짐작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위령비

더 슬픈 기록으로는 전쟁기념비 ‘고바토노토’(어린 비둘기의 탑)를 향해 언덕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1945 년 3 월, 미군 상륙 후에 일어난 집단 자결로 목숨을 잃은 13 명의 마을 아이들과, 북태평양의 일본령 섬들에서 일어난 전투로 사망한 22 명의 아이들의 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탑에서는 마을과 지역 학교가 바라다보여 아이들의 혼이 평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UGGESTED PHOTO(S)

1. (hero image) Aerial View of Village /View of an old Alleyway

2. Takara House

3. Kobato no To (or “over-the-shoulder shot” of view from there)